

# 전통문화에서 길어올린 생태학적 문제의식

## 장희익 외의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국학》

이창식 |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학도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량' 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태위기에 대응하고 생태보존이란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국학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생태에 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처지가 됐다. 국학이 여기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이 시대 국학의 효용성을 한껏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위기에 대한 우리 국학의 실천적인 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국학》(김문당)을 통해 몇가지 단으로 정리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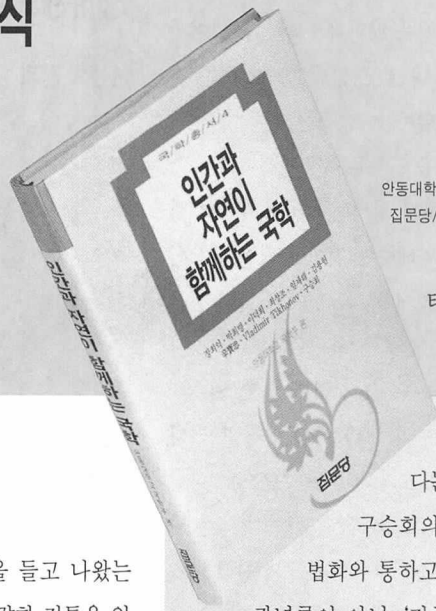
### 생태학적 문제의식 부각시켜

과학만능의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상응하는 문화현상을 지키는 국학자들은 기존 자연관에서 방사선적 시각이 보여준 '유해한 과학'을 진단하고 동심원적인 시각이 보여준 '유익한 미신'을 경계함으로써 생태문화론의 패러다임을 적절히 주도해야 한다. 장희익은 <자연과 인간을 보는 두 시각>에서 "문화 속에 과학을 수용하는 일은 가속되어야 할 것이고, 분별없이 내닫는 물질문명의 창궐은 견제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학의 유산 속에서 이런 측면을 탐색하고 다시 이를 '속도전'의 세계와 '비과학적인' 현상들에 동시에 전파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장희익이 말하는 문화적 가속페달과 문화적 브레이크의 적절한 담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연친화적 전통주의 또는 공생적 문화주의인가. 아니면 양비론의 자연주의인가. 그런데 이 정도 소박한 담론도 현대 서구문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오늘의 문화사적 과제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만한 국학의 시각이 있다.

박희병은 비판적 생태문예학을 들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동아시아 사상의 우량한 전통을 앞세우되 봉건적 요소는 배격한다고 했다. 우량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비평적 이론 만들기와 창작의 영역에서, 그리고 수용자 입장에서 실천론이 거론돼야 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이 이런 점에서 문학 교육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신선하다. 이덕희의 자연경외적 전통관 회복논의, 최창조의 자생풍수관적 생활론, 임재해의 설화 속에서 상생적 자연관의 길 찾기 등은 서구적 발전론의 폐단에서 오는 생태학적 문제의식을 장희익이 제시한 '우리문화속'에서 부각시킨 것이다. 이들 결론이 생태학적 세계관을 다시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미지수지만 '적절한' 문화 생태론을 이끌어내는 실마리를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 생태론적 국학의 길 제시

제2부 <공생적 세계관의 모색>에서는 국학이 수행해낼 구체적 과정에 대해 전통 철학관, 천인합일관, 유라시아 무속적 자연관, 휴머니즘의 재마법화론 등의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가는' 생태론적 국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토론자들의 글 곳곳에서 보이듯, 이들 논의가 비판적 생태담론으로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방향 모색을 보여주는지는 여전히 확답할 수 없다. 생태적 감성의 확충 없이 생



안동대학교 국학부편  
집문당/A5신/356면/18,000원

태학적 위기는 쉽게 극복할 수 없기에 재마법화(再魔法化)가 필요하다. 이는 김용현의 주장은 구승희의 휴머니즘의 재마법화와 통하고 있다. 재마법화가

관념론이 아닌 '지금 여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론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함에도 여전히 보수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국학이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라면 생태학적 담론이 아니라 국학의 생산적 생태 실천론으로 논의를 좁혀야 했다. 이런 점에서 신보충의 글과 <유라시아 민속의 자연관과 한국 고대 무속>은 너무 안일한 일반론이 아닌가 한다.

국학이 쓰러진 시대에 국학의 영역에서 다루기에 너무 벅찬 주제를 이 책은 담고 있다. 이는 국학의 신지식 영역을 개척해 지식산업 분야에서 생태론까지 거론하면서 살아남을 자 노릇을 스스로 짐 지기 위한 몸부림의 일단이기도 하다. 국학자는 외롭다. 더욱이 순수한 국학은 설 자리가 없다. 없기에 무용의 유용성을 환기해 국학의 상생적 자연관으로 행복한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학자도 순진한 문화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지켜가는' 실천론을 수행하는 주체여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에 축적된 사유체계가 논리적으로 온당하게 가다듬어지고 마음과 느낌마저 힘을 얻을 경우 자연 친화적 전통관이 국학의 또다른 범고창신화(法古創新化)로 작용할 것이다. 이 책이 이런 의식을 일깨우는 자극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